

# ‘악성 고발왕’ 얼마나 심했길래...

## 3년동안 공무원·담당 검사 등 수천명 무차별 고발

## 광주지검, 무고·공갈 갈취 혐의 50대 건축사 구속

‘고발건수 1953건, 불특정 상대방을 대상으로 한 투망식 고발 뿐 아니라 대상을 염두에 둔 ‘표적’ 고발, 이익을 노린 청탁성 고발까지 다양한 고발법(?)을, 건축주, 설계·감리자,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담당 검사까지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고발 상대방만 4001명. 건축법 위반 신고를 비롯,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소송, 직무유기 고발에 항고까지 해박한 전문 지식 활용.’

광주지검이 구속해 지난 29일 재판에 넘긴 건축사 A(54)씨의 고발 이력이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광주지검에만 1543건(2471명)을 고발했다. 서울 중앙지검(77건)을 비롯, 동부(8건)·남부(11건)·북부(6건)·서부(50건)지검, 전주지검(254건) 등 전국 10개 검찰청 고발건수까지 포함하면 1953건(4001명)에 달했다.

광주지검은 최근 A씨가 고발한 3년 간 사건 1953건을 전수(全數) 조사한 뒤 허위 사실로 고발을 남발한 62건(무고), 고발할 것처럼 겁을 쥐 고품을 갈취하는가 하면(공갈), 대가를 약속받고 대리해 고발한 사례(6건·변호사법 위반)를 밝혀내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가 고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국가 형벌권을 악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A씨가 광주지검에 고발한 사건 중 32.6%가 각하, 26.3%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기소된 사건은 24.3%에 불과했다. 고발할 것처럼 겁을 쥐 동료 건축사 3명에게 1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가 포착됐다. A씨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80건을 고발, 경찰 조사만 100차례를 받고 건축사무소를 사실상 폐업한 뒤 3000만원을 요구받고 1100만원을 건네준 피해 사실도 드러났다.

**A씨의 악성 고발 사례 보니**

**3년간 고발 1953건**  
**고발 대상자 4001명**  
**광주지검만 1543건**

---

**광주지검 고발 사건 분석해 보니**

**32.6% 각하**  
**26.3% 혐의없음**

‘총 1775건의 건축법 위반을 확인했다. 실명으로 고발할 텐데 이를 방해하는 건축사에게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등 건축사들에게 보낸 협박성 단체 이메일 전송 기록도 나왔다.

검찰이 A씨의 행위가 공익(公益) 신고를 벗어나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특정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부정한 대가를 노린 고발건 남용이라고 판단한 것도 이같은 이유

에서다.

A씨는 그동안 광주 건축계에서는 ‘유명 인사’였다.

A씨의 ‘고발 폭탄’에 몸살을 앓는 구청 공무원들이 적지 않았다. 건축 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A씨 고발 이력은 지난 20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명확하게 드러난 바는 없다. 다만, 애초 무건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전해지는 수준이다. A씨의 신고로 드러난 위법 건축물도 적지 않았다.

A씨는 3년여간 위법 건축물을 신고하는 것뿐 아니라 타 사·도와 다른 업무대행수수료 지급 문제에 대한 소송을 내는가 하 위법 건축물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담당 공무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해박한 건축 관련 전문 지식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데다, 일부 불법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도 있는 탓에 허위라며 무시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구청 공무원들은 “A씨 행위로 일부 위법 행위가 드러난 경우

도 있어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었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A씨는 검찰에 고발 사건을 접수한 뒤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 불복해 고검에 항고하는가 하면,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투망식 고발, 악의적 고발 사례 등이 알려지고 고발 건수가 늘어나면서 다른 시선도 더해지기 시작했다. 특정 건축사 등을 표적 삼아 집중적으로 고발하는가 하면, 사건 80개를 수십개로 쪼개 2개월간 지속·반복적으로 고발하는 사례도 파악됐다.

한편,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처분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지역 다각주 주택의 불법 증축·용도 변경 등은 광주 건축사회,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광주건축사회 관계자는 이와관련, “애초에는 건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건축사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협회 밖으로) 확대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직무 의식적 포기 아니다” 진도VTS 센터장 항소심 무죄 선고

“근무 태만에 해당할지언정 직무무의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세월호 침몰 당시 부실한 관제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았던 진도 해상교통 관제센터(VTS) 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고법 형사 6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30일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진도 VTS 센터장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팀장 3명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300만원과 함께 징역 4개월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관계자 9명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인 1조’ 근무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혼자 관제를 도맡은 것은 불성실한 직무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법상 직무유기의 성립요건인 의식적인 직무 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후 방청석에서는 박수가 터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만 무죄로 인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2명이 구역을 나눠 관제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야간에 1명만 근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

## 보건소 의사 얼마나 힘들길래...

### 남구, 하루 진료 273건...임금은 절반 수준

### 의사들 속속 그만뒀 2년새 모집공고만 4차례

광주시 남구 보건소가 의사 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다른 보건소와 비슷한 조건인데, 유달리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게 남구측 설명이다. 채용됐던 의사들은 5개월을 못 버티고 그만두는 일이 3차례나 발생했다. 의사가 부족해 보건지소 의사가 보건소로 출장나와 진료하는 일이 일상화됐다. 2년 새 4번이나 공고를 냈지만 희망자 찾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남구보건소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

◇2년간 구인 공고만 4차례 = 광주시 남구는 다음달 17일까지 보건소 진료의사(2년 임기제) 모집 공고를 냈다. 지난해 6월 이후 벌써 4번째 낸 모집 공고다.

지난해 상반기 진료의사 1명을 뽑았지만 3개월도 못 버티고 사직서를 냈고 이후 채용한 의사들도 5개월을 넘기지 않고 그만뒀다는게 남구 설명이다.

진료의사 2명, 한방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보건지소장 1명 등 총 5명의 의사 정원 가운데 1명을 채우지 못한 상태로 보건소가 1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월보건지소장은 오전에는 남구 보건소에서 진료를 본 뒤 오후 보건소로 옮겨가 환자를 보는 비정상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루 270여건 진료 = 남구와 남구보건소는 의사 구인난을 뻥뻥한 근무 여건과 열악한 임금에서 찾는다.

업무량은 일반 병원 의사보다 많은데, 임금 수준은 동종업계(의사) 절반에도 못 미쳐 그만두는 의사들이 적지 않다.

보건소 진료의사의 경우 일반임기제 지방의사 사무관(5급)으로 분류돼 수당까지 합쳐 연간 6000~70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일반 동네 병·의원 의사들의 절반 수준이지만 업무는 1.5배 많다. 진료(예방접종 예산 포함), 각종 건강검진, 진단서 발급, 건강상담과 교육 등 하루 평균 진찰 건수가 지난해 말 기준 273건으로 집계됐다.

광주 모 내과병원장은 “업무량은 일반 병원 의사보다 1.5배 많은데 급여는 절반 수준인데다, 의료진에 대한 권위 등도 찾아볼 수 없어 보건소 근무를 기피하는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 이후 제기된 부족한 공중보건 인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른 보건소도 비슷한 점을 들어 남구보건소의 진료의사 구인난과 관련, 급여·근무 여건이 다른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장맛비에 논 둘러보는 농부

장맛비가 내린 지난 30일 함평군 언다면에서 한 농부가 자신의 논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강우량은 광주 13.2mm, 함평 18.5mm를 기록 중이며 광주·전남에서는 신안 가거도에 가장 많은 양(70mm)의 비가 내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만취 운전으로 일가족 2명 숨지게한 화물차 기사 구속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30일 대낮에 만취 운전을 하다 일가족 3명이 탄 승용차를 들이받아 모녀를 숨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등)로 화물차 운전

기사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40분께 여수시 해산동 교차로에서 사곡터널 방향으로 22t 화물트럭을 몰고 가다

앞서 가던 아반테 승용차(운전자 김모·34)를 추돌, 김씨 아내(33)와 딸(3)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트럭 운전자 김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3%(운전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 흙친 모시잎으로 떡 만들어 팔아

○...떡 가게를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남의 뒷밭에 심어진 모시나 무 잎을 싹쓸이해 ‘모시 떡’을 만들어 팔았다가 경찰서행.

○...지난 30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정모(53)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두 시간 동안 광주시 광산구 분당동 삼모(여·55)씨의 뒷밭(26.45m<sup>2</sup>)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모시나무를 낫으로 벤 뒤 자신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옮겨 신고 달아난 혐의.

○...전북 완주에서 떡 가게를 운영 중인 정씨는 이날 고향인 함평을 다녀오는 길에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정씨는 경찰에서 “마를 입구에 덩그러니 놓인 모시 밭을 보자 한판이라도 아껴보기 위해 흙친게 됐다”며 때늦은 후회.

/백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신축 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

- ① 신축 4층건물(총층 13개)
- ② 월세 인기좋은 /임대 걱정없음
- ③ 3층 점포
- ④ 2층~3층 원룸 10개
- ⑤ 4층 안집 투룸 1개

**월수익 540만 매매가 7억 1천만**

- ① 북구 신안동 전대정문 2분 코너(룸20개) 1층상가2개.룸18개 **월수익 700만 매매가 7억8천**
- ② 용봉동 용봉지구 코너(엘리베이터있음) 룸20개(1층상가2개.룸18개.투룸1개) **매매가 7억1천**
- ③ 북구 용봉동 (토90평, 건115평) **월수익 450만 매매가 8억원**
- ④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월수익 42만 매매가 8천만**
- ⑤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월수익 50만 매매가 9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 상가건물매매

<나주시 삼영동 2층 건물>

**1층 6칸, 2층 2칸**  
**토 205평, 건 135평**  
**나주 영강초교 정문 앞**  
**학원건물 적합**

※ 학원 / 도장 / 분식점 운영적합

**월수익 200만 매매가 3억**

- ① 북구 우산동 인보회관 상영건물 7층사무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15억**
- ② 수안동 수안지구 4층중3층 88평 **월수익 180만 매매가 4억원**
-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 ④ 서구 생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억8천만**
-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천만**
-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 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 ⑦ 광양 상아아파트 15평 (상가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 ⑧ 상무지구 중흥A.P.(33평) **매매가 2억4천5천만**

010-6832-9700

### 법원경매 (주)대신경매

수익성 상가 (근린 상가)	추천 특수물건
1. 서구 금로동 7층중7층(토180㎡, 건295㎡)감평가 6억6천~최저가 2억3천 2. 광산구 월계동(토42㎡, 건1135㎡)감평가 2억~최저가 1억4천(점단상가) 3. 서구 지평동 (토44.7㎡, 건257.71㎡)감평가 6억1천~최저가 4억3천	1. 서구 화정동 (근린주택) (토150평, 건276평) 1층주차장(10대기능)2층음식점 3층노래연습장/4층주방 감평가 12억~최저가 8억4천
수익성상가 (근린주택)	2. 북구 운암동 (근린시설) (토 160평, 건283평) 개발기획추천 투자적합 (1층/상가, 음식점, 사무실2~3층사무내) 감평가 8억5천~최저가 5억9천만
수익성 상가 (근린 시설, 통건물)	3. 광산구 산기동(주유소) (토430평, 건170평) 신기병원 복동측 인근. 하남대로변 감평가 15억7천~최저가 11억
1. 북구 운암동(토66평, 건193평)감평가 7억2천~최저가 7억2천 2. 동구 대인동(토780㎡, 건1992.57㎡)감평가 24억7천~최저가 14억 3. 북구 오대동(토114평, 건199평)감평가 4억2천~최저가 2억9천 4. 서구 생촌동(토205평, 건221평)감평가 4억2천~최저가 3억	4. 동구 대인동(근린시설)(토236평, 건602평) (은행, 소방서, 우체국주변상권중음) (지하, 사무실/1층점포/2층~4층사무실) 감평가 24억7천~최저가 14억
공장/모텔/주유소	5. 담양 남면 구산리(교육시설/펜션) (토1427평, 건1251평) 개발기획추천 투자적합 감평가 32억~최저가 7억4천
1. 북구 오대동(토 445평, 건182평)감평가 12억7천~최저가 12억7천 2. 전남 장성 북이면(토 2825평, 건614평)감평가 41억~최저가 15억	
직원 구함	

남, 여 직원구합니다  
부동산 기획 개발까지 배우실뿐!!  
경매직원 구함, 경매 컨설팅 같이 할 직원 구합니다.

010-7384-7800      010-6670-9800

### 경매 실전교육반모집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 실전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목요일,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본 교육부터 ~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 개발기획까지)  
→ 노후대비 적합

### 경매특수물건추천

- ① 남구 노대동 6층중 2층(근린상가)(토31평, 건84평) **이파티입구, 도로접 교통조건 좋음**  
감평가 5억~최저가 3억5천
- ② 서구 생촌동(원룸) (토208평, 건490평) **층4층 유초고 부근**  
감평가 4억8천~최저가 4억8천
- ③ 서구 금호 7층중 3층(근린상가)(토 55평, 건90평) **감평가 6억6천~최저가 2억3천**

062-382-5500  
010-6832-9700